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신문

총기 54년  
2025년 4월 1일  
월 간 발 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8년

제 305 호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 유시문

## “자기 성찰·계행으로 정진해야”



종령 지성 대종사

오늘은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을 회향하는 날입니다. 49일 불공의 회향은 교도 보살님들의 깊은 신심과 서원, 그리고 용맹정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향일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불공에 전념해 주시고 염주와 진언을 놓지 않으신 모든 보살님들과 각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초창기 종단은 수행할 공간이 작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스승님들의 법문을 듣기 위해 이십 리 밖에서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교화 열기가 대단하였습니다. 스승님들은 열의와 사명감으로 중생 교화에 임했고 교도들은 오로지 부처님 법을 믿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닦아나가면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용맹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생활 수준이 풍요로워지면서 오히려 정신적인 수양을

소홀히 여김에 따라 수행 정신도 많이 퇴색되고, 불공을 하는 데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 지심으로 염송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른 계율과 청정수행으로 부처님의 정법에 따라 바르게 행해야겠다는 굳은 신심을 함양해야 합니다. 승직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각오로 중생 교화를 위해 끊임없는 정진으로 교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교도들은 스승님들의 법이 곧 부처님의 법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종단 발전은 개개인의 수행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토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뼈를 깎는 각오 속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무릇 송곳 끝에 앉은 긴장감과 날카로운 자기반성으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둘러보는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계행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나를 지탱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성찰에 있습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고 깊은 관찰을 통해 수행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바세계에서 악업에 물들지 않고 선업을 지어 나갈 수가 있으며, 그것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총기 54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회향일을 맞이하여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를 함께하시어 무한한 복덕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54년 4월 8일  
불교총지중 종령 지성 합장

##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재)불교총지중유지재단, 우리은행 1005-503-240942

대한민국이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을 겪었다. 이에 따라 종단은 대 참화로 한순간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 긴급구호 모금에 나섰다.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이와 관련해 1일자로 전국 사원에 공문을 보내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 영남지역을 집어삼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월초 불공이 끝나는 4월 13일 자성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단은 공문을 통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희생자 영식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피해 이웃들이 하루속히 무너진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상실감과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이재민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양면으로 적극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은 전국 각 사원 또는 (재)불교총지중유지재단 계좌(우리



조계종 16교구본사 교운사의 전각 30동 가운데 21개동이 전소됐다. 몸통이 갈라진 채 폐허 위에 서 있는 범종이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사진제공=법보신문

은행 1005-503-240942)로 보낼 수 있으며, 입금 시 사원명과 이름을 기재하면 된다(예: ○○사 홍길동). 모금된 성금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록경 정사는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중생

구제와 불교정토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나라와 일체중생의 재난 소멸을 발원하는 불공에 더욱 정진하자.”며, “이재민의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소중한 나눔으로 용기를 전하고, 내 자신의 복덕을 증장하는 희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유네스코 문화유산 ‘연등회’ 서울 체험단 모집

불교총지중 교도 가족 대상, 숙식·교통비 제공

종단은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연등회’ 체험단을 모집한다. 서울에 집결된 축제의 장을 전국 교도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숙식(총지사 또는 개별숙박)과 교통비 등 편의를 제공하여 부처님오신을 함께 찬탄하고, 신행의 기쁨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교도와 가족은 통리원이 준비한 소정의 양식을 받아 4월 20일까지 소속 사원, 성명 등의 간략한 정보 제출과 함께 통리원의 안내를 받은 후 동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26일 오후 3시부터 동국대학교에서 펼쳐지는 연등회 ‘어울림마당’에 참석하고, 연등 행렬에 동참 후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일정을 보낼 수 있다.

‘연등회’ 주요 행사로는 전통등 전시회(4월 16일~5월 6일, 조계사), 연등회 어울림마당(26일 동국대), 연등 행렬(26일, 흥인지문~종각), 대동 한마당(26일, 오후 9시 30분, 종각), 전통문화 한마당·공연 마당(27일, 조계사 앞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등회는 올해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았다. 문의=02-522-1080

종/조/법/어

고난이 없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고난을 겪는 중에 인격이 완성하느니라.

지 면 안내

4면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 6. 설법의 특징  
5면 왕생법문 - 항상 자기를 돌아보자  
8면 소통의 한의학 ② - 마음과 건강

## 제104회 춘계 강공회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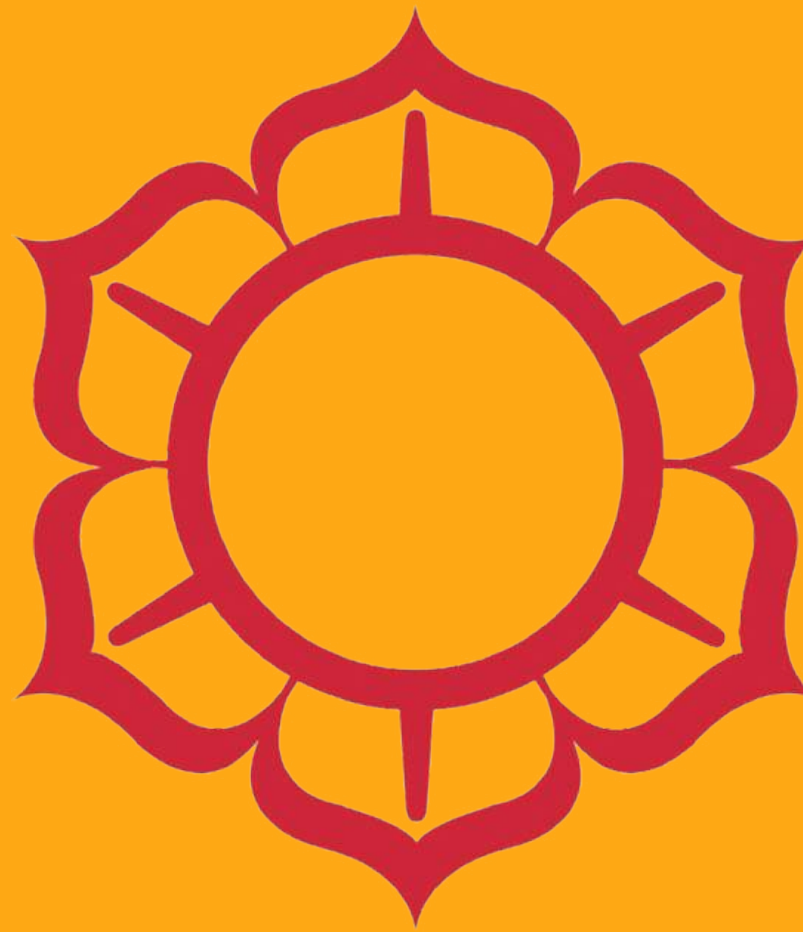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총기 54년 4월 16일(수)~17일(목)

대상 불교총지중 전 스승 | 장소 본산 통리원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 종립 동해중학교 2025학년도 입학식 거행

3월 4일, 7개 학급 신입생 213명 입학



2025학년도 종립 동해중학교 입학식에서 이사장 록경 정사가 축사하고 있다.

학교법인 관음학사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가 2025학년도 제58회 입학식을 지난달 4일 오전 10시 30분 동해중학교 강당에서 열었다. 이사장 록경 정사를 비롯한 선생

님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7개 학급 213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학교장의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들의 우렁찬 입학

됐다.

록경 정사는 입학 축사를 통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성장과 발전은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이루어진다.”며 “때로는 실패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훈시했다. 이어 “그 성장이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겠다.”고 환원했다.

송인근 교장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며 건강하게 커나가지.”고 인사했다. 이어 참석 학부모에게도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아이들이 자라나며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학교와 함께 소통하고 해결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중학교는 지난해 졸업생 총 184명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공개했다. 한국과 학영재학교 3명을 비롯해 부산 과학고 3명, 자사고 3명, 외고 및 예술고 7명,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38명, 일반고 128명, 기타 2명으로 부산 지역에서 우수한 진학 성적을 자랑했다.

## 시각화 지수 49재 천도불공법회 봉행

3월 15일, 포항 수인사에서 엄수



“이 세상 떠날 때에는 바람 한 자락 되게 하소서. 이 세상 다시 올 때는 자비가 가득하게 하소서.” 지난 1월 연화장세계로 든 시각화 지수의 49재 천도불공법회가 포항 수인사(주교: 법상 정사)에서 3월 11일 통리원장 록경 정사를 비롯한 교구장과 전국 스승, 유가족, 교도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시각화 지수는 2007년도 “평생 교화의 길을 걷은 것에 대해 만족하며, 후배 스승님들

은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전심전력하길 바란다.”는 퇴임사를 남기고 기로원에 들었다. 자제 둘을 승직에 오르게 했으며, 오직 밀법 전수와 교화 발전의 꽃을 피우는 데 한평생을 바치고 법랍 50세, 세수 88세로 입적했다.

총무부장 덕광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영식의 극락왕생과 구경성불을 일심으로 서원하며 원만 회향됐으며,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추선의 마음을 더했다.

## 사회복지재단 정기 이사회 개최

신임 이사에 법선 정사 선임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25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달 14일 개최됐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2025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달 14일 통리원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재직 이사 8명 중 이사장 록경 정사를 비롯한 5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3월 24일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법상 정사에 대해 재선임을 의결하고, 보현 전수 후임으로는 재무부장 법선 정사를 새롭게 선임했다.

이어 재단 사무국의 2024년도 결산과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아울러 산하시설인 석관실버복지센터와 세곡다함께기움센터의 2024년도 결산과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오는 5월과 7월 각각 수탁이 만료되는 세곡다함께기움센터와 석관실버복지센터에 대해 참석자 전원 일치로 재수탁 심의를 결정했다. 수탁 기간은 5년간이다.

### 대구경북교구장 법상 정사

총무에 국광사 일진 정사



법상 정사



일진 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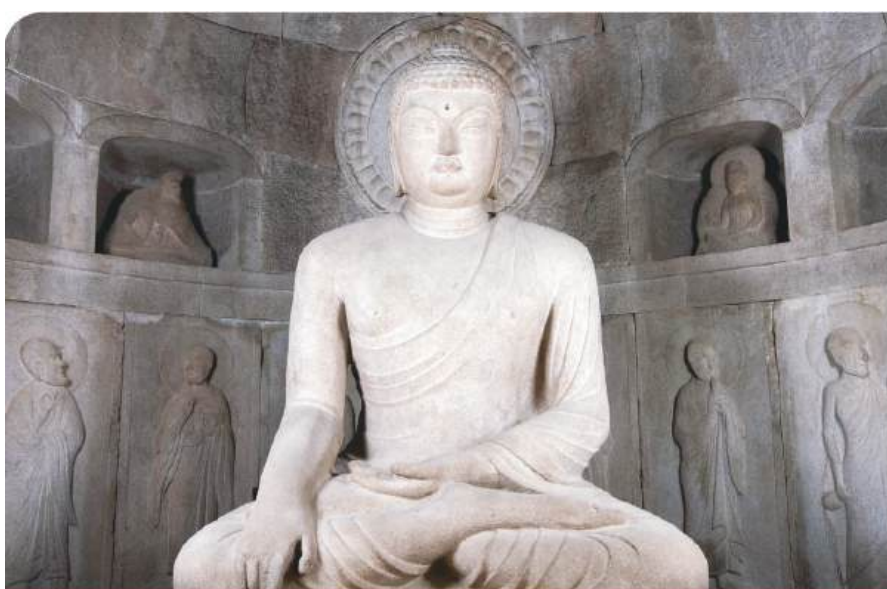
대구경북교구장에 법상 정사(수인사 주교)가 선임됐다. 대구경북교구는 지난달 18일 교구회의를 열고 교구장에 법상 정사를 선임했다. 총무에는 국광사와 일상사 주교를 맡고 있는 일진 정사를 선임했다. 교구장의 임기는 3년이다.

### 신정회 서울경인지회 회의

연등회, 교리공부 등 논의



신정회 서울경인지회(지회장: 노진숙)가 지난달 11일 총지사에서 회의를 열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회가 적극 나서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열어 나가자고 마음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통리원장 록경 정사가 배석한 가운데 노진숙 지회장과 사원 신정회 회장, 마니합창단 단장 등 주요 간부들이 모였다. 이날 지회는 연등회 행사에 전 종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과 한 달에 한 번 지회와 합창단이 함께 교리 공부할 것을 의결했다. 또 종단 수계법회 봉행과 요양원 등 교도 노후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토의하고 이를 종단에 제안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펼쳐 읽고,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

마음이 으뜸 되어 모든 일을 이루니

경전 말씀과 불교의 가르침 중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쉬운, 그렇지만 깊은 성찰과 여운을 주는 222개의 가르침을 가려뽑고 간단한 단상을 덧붙였다.

이 책은 온갖 욕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청량제 같은 가르침들은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화령 지음/사륙판/232쪽/값 12,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 “청정법안으로 통합과 상생의 정치 구현” 발원

국회정각회, 2025 신춘법회 봉행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정각회(회장: 이현승)가 3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춘법회를 봉행했다. 비상계엄 후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청정법안의 눈을 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겨 온 국민을 평안케 하는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록경 정사를 비롯해 회장 진우 스님(조계종)과 차석 부회장 능원 정사(진각종), 부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등 종단협 소속 스

님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정각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 축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승 불교의 대표 경전인 『유마경』에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다. 정치인이 국민을 대하는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지금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회부터 불교의 ‘화쟁사상’과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들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축사 후 신춘법회 참석 대중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의 지도로 선명상을 체험했다. 스님은 “잡념과 번뇌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무애자재행이 나오고 평안해진다.”며 “평온한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 자연히 무애자재가 되어 어긋남이 없게 된다.”고 설교했다.

이날 신춘법회는 봉은사 유마힐합창단의 음성공양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됐다.

## BBS불교방송 신임 이사에 통리원장 록경 정사

제127차 이사회 개최, 2024년도 결산 감사 등



BBS불교방송 이사회가 지난해 수입·지출 결산 감사를 승인하고 신임 이사에 통리원장 록경 정사를 선임했다. BBS불교방송은 지난달 19일 서울시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제127차 이사회를 열어 통리원장 록경 정사를 새 이사로 선임하고, 성행 스님의 이사 연임 건을 통과시켰다. 또 2024년도 결산 감사 결과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BBS부산불교방송 사옥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초기 사업비를 대여하는 주체를 BBS부산불교방송에서 삼보륜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안도 다뤘다. 이밖에 지난해 신규 입사자가 전년보다 30여 명 늘어난 데 따른 인건비 증액의 내용 등을 담은 2024 예산 결산 보고의 건도 논의됐다.

## 지혜의는 리즘(Rhizome)과 연기(緣起)

차이는 있지만 우열의 차별 없어  
중심과 주변이 없이 모두가 ‘평등’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리에 접근할 때 겪는 어려움의 하나가 용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교육의 내용을 서양의 사상과 체계로 채웠기 때문에 불교용어는 점점 낯설어지고 외국어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불교를 서양의 세계관으로 해석하면서 심하게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하위 종교로 인식하게 한 점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존 서양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불교에 대한 서양 학자들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개별적 존재보다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것이 본질적이라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이데아, 신, 이성이라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확산한다는 일종의 ‘유출설’은 자연스럽게 중심과 주변의 차등이 설정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와는 다른 내용이 바로 20세기 중반 이후 널리 알려진 ‘리즘(Rhizome)’으로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하였습니다. 수목형 식물이 뿌리와 가지와 잎이라는 위계를 가진다면, 리즘은 가지가 흙에 닿아서 뿌리로 변화하는 지피식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중심과 주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평등(平等)’이라는 말은 본래 불교 용어입니다. 일본인들이 ‘이퀄리티(equality)’를 번역하면서 평등을 가져다 쓰면서 정치적·사회적 용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라는 념을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과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이 인간의 죄를 사(赦)한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지어도 누가 그것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사람을 차별 없이 재판하여 상벌을 공평하게 준다는 의미에서 평등왕(平等王)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의 불보살은 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자비만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앞서 리즘이란 식물로 세계의 실상을 설명하는 현대 철학의 논리는 ‘연기(緣起)’라는 불교적 근본원리와 닮아있음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세상 만물은 서로 다르므로 차이는 있지만 우열의 차별은 없습니다. 현대 진화론은 진화(進化)라는 용어가 주는 차별적 의미 대신 다양화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모든 생명체는 주변의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량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에 이르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나를 있게 하는 존재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매우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계가 저지른 일로 제주도 4·3사건과 황해도 신천 사건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와 다른 세력을 잔인하게 제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2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텍)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3절 각종 논설

6. 설법의 특징

대기설법(待機說法)=지식계급(知識階級)에는 고매(高邁)한 이론(理論), 하급(下級)에 대(對)해서는 비근(卑近)한 예(例)와 비유(比喩)

상호설법(相好說法)=용모(容貌) 거지(擧止)로서 상대방(相對方)을 위압(威壓) 비유설법(譬喩說法)=육창일원등(六窓一猿等) 비유(譬喩) 추상적(抽象的) 원리(原理)를 구체적(具體的) 비유(比喩)로서 표현(表現)하고 고원(高遠)한 이상(理想)을 안전(眼前)의 사물(事物)에 의탁(依託)하여 상대(相對)의 이해(理解)를 용이(容易)하게 하는 설법(說法)이다.

인연설법(因緣說法)=현재(現在)의 사실(事實)에 대(對)하여 그 유래(由來)한 본원(本源)을 설(說)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因緣)담은 상대(相對)로 하여금 자신(自身)의 현실적(現實的) 반성(反省)을 강조(強調)하여 과거(過去)를 회고(回顧)함과 동시(同時)에 장래(將來) 선과(善果)를 이루도록 격려(激勵)함으로써 그 생활(生活)을 청정(淸淨)케 하는데 목적(目的)이 있다.

문답법(問答法)=주(主)로 이학외도(異學外道)에 대(對)하여 편견사람(偏見邪念)을 전환(轉換)케 하는 방편(方便)으로 사용(使用)한다. 세존(世尊)은 상대(相對)의 질문(質問) 형식(形式) 여하(如何)에 따라 그 답변(答辯)의 방법(方法)을 달리 하였는데 네 가지로 분류(分類)된다.

그 첫째는 일향기(一向機)로서 상대(相對)의 질문(質問)이 적절(適切)할 때는 그대로 긍정(肯定)하는 것이요,

그 둘째는 분별기(分別機)로서 질문(質問)이 이치(理致)에 적합(適合)한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分別)하고 가부(可否)를 대답(答答)하는 것이요,

그 셋째는 반詰기(反詰機)로서 질문(質問)에 즉시(即時) 답(答)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反問)과 힐문(詰問)을 통(通)하여 상대(相大)의 오류(誤謬)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요,

그 넷째는 사치기(捨置機)로서 질문(質問)이 이치(理致)에 합당(合當)치 않고 아무런 소용(所用)도 없는 경우(境遇) 아무런 회답(回答)도 하지 않고 침묵(沈默)하여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전이법(轉意法)=상대(相對)의 논설(論說)을 처음부터 부정(否定)하지 않고 그 형식(形式)을 긍정(肯定)하면서도 교묘(巧妙)하게 그 내용(內容)을 전환(轉換)하여 새로운 의의(意義)를 부여(賦與)하는 방법(方法)이다. 바라문(婆羅門)의 이상(理想)은 생천(生天)인데 세존(世尊)은 이러한 생천설(生天說)을 직접(直接) 부정(否定)하지 않고 생천(生天)하기 위(爲)하여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四無量)을 닦아야 한다고 설유(說論)함과 같은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하 생략)

몇 년 전, 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 10년 넘게 불교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홍창성 교수를 방송에 모신 적이 있다. 불교를 전혀 모르는 미국의 대학생과 유학생에게 끊임없이 문답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언어와 사고체계에 맞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자 정성을 기울여온 모습에 감명받은 기억이 있다. 그들은 강의나 글에서 이해되지 않는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강사나 저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해와 설득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답을 요구한다고 한다. 우리는 그럴 때, 이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나 싶어 부끄러워하며 침묵하기 쉬운데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는 이가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이 의무라는 이야기에 놀랐다.

어쭙잖지만 글 쓰는 일을 하면서 나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짧고 쉽게, 그리고 경험에 비추어 솔직하게 쓰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글은 읽는 것부터 재미가 없다. 불교 용어는 개념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헤매기 일췌이니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단어는 피하고, 반드시 써야 하는 단어라면 쉽게 풀어쓰려 노력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용어 몇 개 바꾼다고 내용이 알찬 건 아니다. 아는 척 해보야 감출 수도 없다.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글이 쉬워진다. 제대로 알고 충분히 체화해야 나올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이 있다.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거쳐 내면에서 소화되고 걸려져야 쉽고 구체적인 언어가 나오는 법이다. 지식이 얇고 수행력과 지혜도 턱없이 부족한 까닭에 말이며 글에 향기가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랴. 수준과 깊이와 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내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감명받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 라고 생각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인류 최고의 의사라고 이야기한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의사이고, 상담가이며, 마음 치유자라고 표현한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약과 주사

와 메스로 병을 치료하지만,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말로써 치유한다. 그런데 말이란, 나오는 그대로 상대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병을 앓고 있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바꿔야 한다. 마음 먹고 마음 쓰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육체의 병을 극복하는 데에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병은 거의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말에 정성을 기울이신 것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상대의 수준과 관심에 맞춰 말씀하셨다. 그것이 대기설법, 비유설법, 인연설법 등이다. 찾아오고 물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상황에 맞추어 이렇게도 예를 들고 저렇게도 비유하여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것이 팔만사천의 방대한 가르침이 되었다. 그리고 말 이전에, 빛나는 위의와 상호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화를 주셨다. 부러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생활이 곧 삼매이고 일상이 곧 깨달음이었기에 지혜와 자비가 흘러넘쳤으리라.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그 전에 함께 고했했던 다섯 수행자를 찾아갔을 때 그들은 고행을 저버린 타락한 수행자라며 아는 척도 하지 말자고 했다. 하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부처님을 뵈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일어나 맞이하고 자리를 치워 모시며 가르침을 청했다.

불교방송국 17층 복도 끝에는 방송 출연을 위해 오신 분들이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자그마한 테이블이 두 개 놓여있다. 어느 날 녹음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멀리서 비구니 스님의 뒷모습이 보였다. 너무나 작고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스님의 뒷모습에 자비의 온기와 지혜의 광채가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머리와 가슴과 온몸에 광배가 솟구치고 수행정진력이 높은 큰스님들께서 빛을 뿜었다고 하더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방송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자주 본다. 얼굴이

너무 맑고 투명해, 잘생긴 배우나 포스 있는 저명인사들이 내뿜는 아우라와는 결이 다른 수행자의 모습을 만나곤 한다. 번뇌와 욕심이 적으면 얼굴 자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사유와 수행의 시간이 자비와 평화로 이어져 몸짓 자체가 고요하고 안온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불교 수행자라면 달라이 라마 존자와, 얼마 전 원적에 드신 틱낫한 스님을 꼽는다. 두 분의 글을 읽으면 어려운 말이 별로 없다. 달라이 라마 존자는 ‘친절’과 ‘용서’라는 말이, 틱낫한 스님은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것이 곧 불교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한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기에 그대로 살아있는 법문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가르침을 들은 60여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수행자들이여,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안락을 주기 위해 떠나라. 유행할 때는 많은 사람을 위해 애민하여 섭수하고자 법을 전하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모두 올바르게 설하여 의미가 분명하고 어구가 명료해 의심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수행자는 항상 원만구족하고 청정한 범행을 보여주어야 한다.” 말과 행동과 마음이 순일하고 한결같은 바탕 위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라는 전도 선언을, 우리 불자도 따르고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어쩌면 말이 아니라 실천이 부족한 것일지도 모른다.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느낀 만큼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벌써 부처가 되었을 것이고 이 세상은 불국정토가 되었을 것이다. 실천만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기도로, 설법으로, 봉사로, 그리고 미소와 친절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구성작가

관성사 교도 광고



#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   |   |                  |
|---|---|------------------|
| 평 | 일 | 9시 30분 ~ 18시 30분 |
| 수 | 요 | 일                |
| 토 | 요 | 일                |
| 점 | 심 | 시                |
| 시 | 간 | 13시 ~ 14시        |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의 로히니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에는 코울리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코울리아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석가족의 일족으로서 카필라성의 석가족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과 태자 시절의 비인 아쇼다라도 코울리아족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양쪽 나라를 끼고 있는 로히니강의 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된 어느 해 여름, 곡식이 타들어 가기 시작하자 양국의 농민들은 강둑에 서서 어떻게 물을 끌어들일까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울리족의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이 강물을 나라와 함께 사용한다면 두 나라 곡식이 모두 말라죽을 것이다. 물은 우리 나라에서만 쓸 테니 모두 이리로 보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만 물을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나? 가을이 되어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너희 나라로 가서 곡식을 나눠달라며 사정이라도 하란 말이나? 어렵다. 강물은 이쪽에서 모두 끌어들어야 해!”

이렇게 서로 물줄기를 자기 나라 쪽으로 끌어들어야 한다며 다투었고, 차츰 감정이 격해지자 욕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누이나 동생과 동침하는 카필라 놈들아! 한번 붙어 볼 테냐?”  
“대추나무에 둥지를 틀고 사는 코울리 족속들아!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 보라. 단번에 작살낼 테다.”  
마침내 두 나라의 농민은 자기 관리에게도 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대의 허물을 만들어 보고했고, 두 나라 관리는 농민에게 들은 대로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이 사실이 온 나라로 전해지자 석가족은 흥분했습니다.

“누이나 동생과 동침하는 사나이의 주먹맛을 보여주자.” 코울리아족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대추나무에 둥지를 치고 사는 사나이의 힘을 보여주자.” 마침내 두 나라는 전쟁 직전

수행자는 못난 바보가 될 때  
수행의 정도는 더욱 깊어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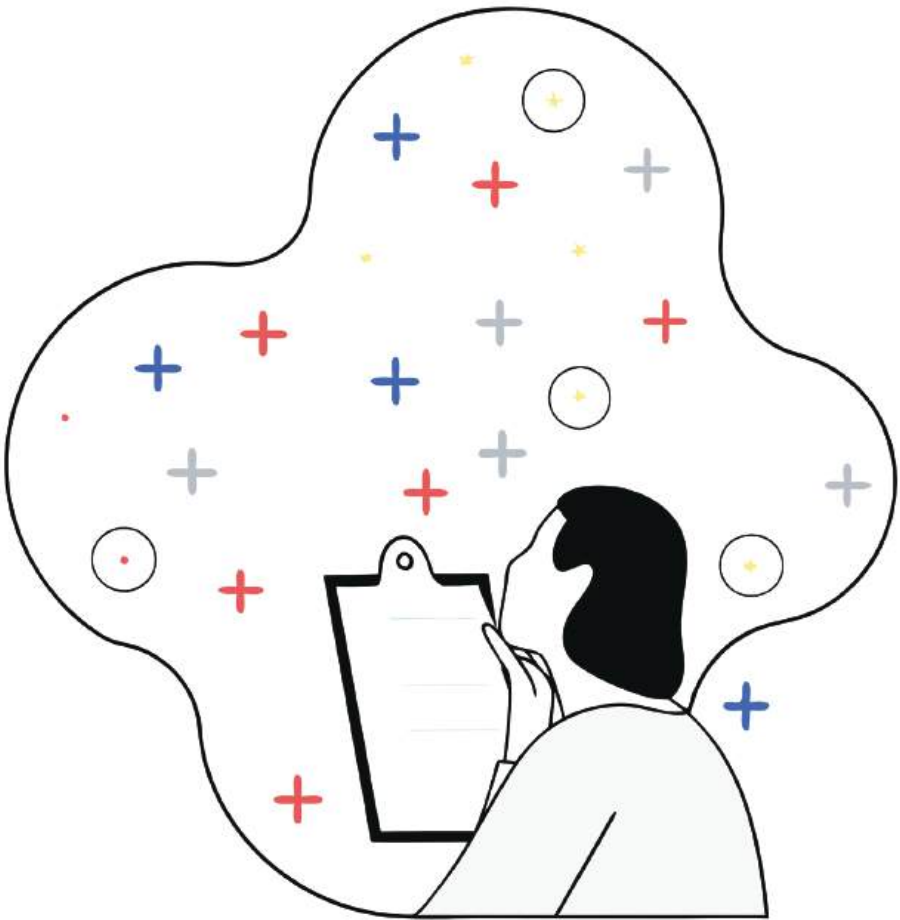
의 험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카필라 교외에 있는 대림에 머무시다가 이 위기를 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공중을 날아 로히니강의 상공에서 좌선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나라의 왕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모습을 보자 무기를 버리고 예배했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마 장군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물어가다가, 마지막으로 농민에게 물어보니 물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의 원인을 알게 되자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왕이여, 물과 사람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물 때문에 훨씬 중요한 목숨을 버리려 하십니까? 그것도 전투하는 이유조차 모르는 싸움을!”

양국의 왕은 부처님의 이 말씀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죽여 피의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소하게 시작된 말 한마디가 능히 피바다 직전의 상태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실로 구업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허물부터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수행자가 본분을 잊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중상모략한다면 어찌 합당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수행자가 남을 헐뜯



잘못했더라도 욕을 들으면, “이 자식이 욕을 해? 잘 만났다. 오늘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악을 쓰며 달려듭니다. 아부성 칭찬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추켜세우면 은근히 좋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긍정할 줄 모르고 칭찬을 좋아하는 밑바닥에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잘난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요?

넓은 들판에 전나무와 가시나무가 서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늘 알잡아보고 있던 전나무가 어느 날 가시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못생긴 가시나무야, 너는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구나.” 전나무의 말에 가시나무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시나무가 전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전나무야, 그러면 너는 어떤 쓸모가 있니?” “나만큼 좋은 재목이 어디 있겠어? 마땅히 좋은 집을 지을 때 사용되지.” 전나무는 어깨에 힘을 주며 뽐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피식 웃으며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나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이 들판에 오면 그뎨 내가 부러워질걸?” 전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처럼 수행자는 잘 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못생긴 나무가 되고자 할 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고, 세상의 부질없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도를 잘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칭찬과 비난을 받을 때 감정의 동요가 생겨날 까닭이 없습니다.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한 것도 없이 남의 칭찬을 들을 때 능히 부끄러워할 줄 알고, 허물이 있어서 욕을 들을 때 야단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없애줍니다. 수행자는 잘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못난 사람이 되고 못난 바보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못난 바보가 될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수행의 정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                |
|----------------|
| 사이즈 가로 25cm    |
| 세로 15cm        |
| 높이 15cm        |
| 정가 60,000원     |
| 문의 02)552-1080 |
| 불교총지종 통리원      |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 근현대 판첸 라마 법통과 육자진언 법문

티베트불교의 달라이 라마 제도는 한국 불자로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종교 사회적 전통일 것이다. 달라이 라마 제도는 티베트인이 추구한 법왕의 통치가 현실의 정치 제도에서 실현된 결과로 보아도 좋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티베트는 달라이 라마 제도가 탄생하기 이전 서로 다른 종교나 종파를 지지하는 지방 세력 간의 심각한 전쟁이 있었다. 티베트인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 왕권과 정치적 안정을 선결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정법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통치자는 불교에 대한 최고의 교양과 지식을 갖추 필요가 있었다. 달라이 라마 제도는 달라이 라마 5세 때 세력을 크게 확장했고, 이때 판첸 라마 제도도 함께 탄생했다.

이번 글에서 다룰 판첸 라마 10세에 대해 약간 언급하면, 그는 1938년 2월 9일 티베트 동부 압도 지방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곤뵈쩌덴이다. 그의 출생은 판첸 라마 9세인 툽텐초기니마(1883~1937)의 입적 후 1년이 경과 한 시점으로, 티베트 정부는 전통적 방식대로 9대 판첸 라마의 환생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곤뵈쩌덴은 사미계를 받고 이름을 ‘뽕상 탄데 룬둑 최기 겔첸’이라고 하였다. 판첸 라마 10세는 파시툽보 사원과 꿈보 사원에서 혹독한 공부를 마쳤고, 1959년 최종 학위인 계세학위를 받았다.

전대 판첸 라마인 판첸 라마 9세는 중국 국민당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국공 전쟁에서 공산주의자 마오쩌둥이 승리하였고 중공은 티베트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판첸 라마 10세를 이용하였다. 1951년 중공과 티베트는 ‘17개 조약’으로 알려진 강제 조약으로 사실상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로 병합하였다. 판첸 라마 10세의 삶은 중공에 철저히 이용당한 채 이를 알면서도 티베트의 현실적 자치권과 불교의 전통을 되살리려는 노력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티베트와 중공 양측 모두로부터 불신이었다.

개인적으로 판첸 라마 10세는 판첸 라마 전통의 환생으로서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 한 위대한 고승이자 위대한 영혼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공에 억류되었던 판첸 라마 10세는 말년에 티베트로 돌아와 1986년 대기원법회를 재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외국을 방문하였다. 1989년 1월 23일 판첸 라마는 파시툽보 사원의 불탑 건립 불사에 후진



판첸 라마 9세 툽텐초기니마

타오와 함께 참석하였다. 판첸 라마 10세는 법문에서 티베트의 고승과 함께 티베트의 진정한 자치권을 중공 정부에 요청한 이후 5일이 지나서 28일 석연치 않게 입적했다.

판첸 라마 10세의 인생 역정을 되짚어 보다가 우연히 전대 판첸 라마 9세 툽텐초기니마의 육자진언에 대한 법문을 입수했다. 판첸 라마 9세가 1931년 중국 강소성 보화산 융창사에서 법문한 것인데, 아미타불의 제자로서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소개하고 육자진언의 염송은 신어의(身語意)의 삼업을 관세음보살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유가 삼매라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자진언의 ‘옴’에 대해서는 산스크리트어 ‘아, 우, 음’의 조합이며, 여기서 ‘붓다의 삼신’이 곧 나의 삼신이며, 나의 삼업은 부처님의 삼업이라는 유가의 경지를 도모한다고 하였다. ‘마니’에 대해서는 ‘불법의 공덕’, ‘반메’에 대해서는 ‘반야지’로 풀이하였다. ‘훔’에 대해서는 성취, 완성의 진언으로 가르쳤다. 티베트와 동아시아를 막론하고 육자진언에 대한 동일한 주석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판첸 라마 9세는 중국의 대중에게 육자진언을 연마하기 위해 『금강경』, 『법화경』, 『아미타경』을 독송함으로써 육자진언의 법체와 묘유의 상호, 제법의 불사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토양에 맞게 육자진언을 독특하게 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영경원 정성준 연구원

## 경전과 인간사에 근거한 사관 정립

### 불교총지종 창종주 원정(苑淨)의 밀교사관 계승과 과제

- I. 서언
- II. 행장과 창종 이념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2. 창종 배경과 이념
- III. 밀교사관과 교판사상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2. 역사관과 존재진언
- IV. 원정사상의 계승과 과제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2. 자주정신과 외래 전승
- V. 결어

###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종단의 역사 인식은 종자·종풍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고 종단의 다양한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원정의 밀교사관 계승은 원정이 후손에게 기대한 한국밀교의 발전 방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원정이 설한 밀교의 역사관은 첫째, 종교관에 입각해 경전에 근거한 것과 둘째, 현실의 인간사에 근거한 사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정의 불교사관은 불전에 근거한 사관과 현실의 불교사를 모두 수용하고 불교사 전체로부터 밀교사의 특수성을 구분하는 해안을 지니고 있다.

인도불교사를 살펴보면 부파불교시대 이루어진 불전(佛傳)의 기록이나 대승경전의 경우 불전문학(佛典文學)으로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비유가 존재한다. 종교문학을 역사적 잣대로 재단해 허구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다. 종교문학에 나타난 비유와 허구는 종교 전적으로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며 종교의 의지처로서 중요시된다. 대승경전의 독송과 사경이 중요한 이유도 같은 기준에서 설명될 것이다.

밀교의 성립 과정에서 불교논리학의 존재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인도불

교에서 디그나가(Dignāga, 480~540)에 의해 기초가 마련된 불교논리학은 삼장에 대해 불교경전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고 불전이 지닌 문해성과 진리를 다루는 실재를 구분하여 요의(了義)·불요의(不了義)를 구분하고 경전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만약 불교논리학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교는 성불을 위해 3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허구와 비유의 바다에 허덕이고 출가 이후 일생에 삼장을 섭렵하고 입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불교논리학으로 인해 삼장의 분석이 끝날 즈음 7세기 『대일경』이 출현하였으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일경』의 태장계만다라의 부속원들은 방대한 대승경전의 사상과 불보살이 태장계만다라의 본존이 되어 종자·수인·불형으로 요약되었으며, 진언문(眞言門)의 수습은 간결한 진언유가에 의해 대승불교의 3겁 성불은 속질지도(速疾之道)로서 대전환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밀교의 성립 이후 인도 불교는 방대한 삼장을 요약하고, 이후 수행체계를 체계화하고 정비하는 도차제(道次第) 문헌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은 티베트불교에도 이어졌는데 도차제 문헌의 공통점은 어느 것이나 현밀쌍수(顯密雙修)의 기초를 지지하는 것이다. 인도불교의 밀교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학은 교상판석에 의해 간결하게, 실천적 입장에서 실용주의와 현실주의를 선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티베트불교의 도차제 문헌에서 드러나는 것은 현교와 밀교의 관계이다.

석가모니 붓다가 설한 삼학의 토대에서 보면 인도불교의 수행은 계학은 출가계와 보살계가 중심이 되고 해학은 현교의 삼장과 인명이 근거가 되며, 정학은 지관의 유가와 밀교 수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불교사의 교훈은 인도·티베트의 도차제 문헌에서 현교의 지관수행을 마친 후 수습의 방편으로

서 다음 밀교수행으로 나아간다고 가르친다.

원정은 소의전적으로서 『이취바라밀경』과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을 선택했다. 전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현교의 핵심적 사상과 보살도와 모든 사상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밀교수행의 이론적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 불공삼장(不空三藏) 전적에서 근거한 것이 많다. 불공은 중국의 종파가 남긴 방대한 종교문헌을 종파별로 요약하여 많은 의계류를 남겼는데, 이것은 인도불교에서 일어났던 간결·실용·현실주의의 노선을 적용한 것이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 저술의 의도는 동아시아불교에 유행한 종학에 대해 방대한 중국 문학의 바다를 탈피해 화엄·천태·선·정도의 교판을 통합한 간결한 수행도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도불교와 동아시아에 일어났던 불교사는 밀교로 귀착되지만, 잘 알려진 대로 밀교 수행은 현교의 교학적 기초와 바라밀의 지관을 닦은 후에야 비로소 들 수 있는 관정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것은 『진실경경(眞實攝經)』에서 일체의 성취보살(一切義成就菩薩)이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의 통달보리심(通達菩提心) 수행에서 처음 마음을 주목해 관한 수행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계 불교계는 인도불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반복하고 있으며 티베트불교를 주축으로 연기·반야·중관 중심의 교학과 본존관상의 실용적 밀교수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은 인도 불교의 현상이지만 원정이 예측한 미래불교의 향방이기도 하며, 생활불교 총지종의 모토로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원정이 가르친 자주와 이원론, 실용주의적 생활불교와 출가주의의 탈피 등 다양한 이론에서도 발견된다.

정성준 박사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 총지불교대학 운영, 교육 다각화...불음포교로 신행 활력

##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 04. 함께 닦는 진언 행사

####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종단 발전의 근간인 교육사업에 대한 모색과 시도가 거듭됐다. 1996년 4월 23일 제47회 강공회에서 총지불교대학 학제와 교과과정이 발표되었다. 승직자와 종무원의 자질향상, 예비 승직자 양성, 올바른 인성과 불교적 소양 함양, 일반인을 위한 강좌 개설을 목표로 승직자 대상의 아사리 과정, 교도를 대상으로 하는 시교 과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과정 등 3개 교과과정을 추진했다.

통리원에 총지불교대학 강의실을 마련하고 종단의 원로스승과 동국대학교 교수진, 법장원과 밀교연구소 연구원을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근본불교, 밀교개론, 보살사상, 천수경 강의, 밀교경전 연구 등 교과목을 개설했다. 6월에 교도를 대상으로 총지불교대학 기초교리 과정을 개강하고 9월에 스승을 대상으로 총지불교대학을 개강했다.

총지불교대학은 교육에 참여한 스승과 교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 매년 강공회와 각종 회의, 사원의 불공과 교화 활동 등 빠듯한 일정 때문에 교육 참여에 무리가 따랐다. 한동안 부침을 거듭하고 다각적인 타개책을 시도하는 가운데 2005년 총지불교대학 아사리 과정을 재개원했다. 6월 1일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지역의 스승을 대상으로 부산 정각사에서, 9월 2일 서울, 경인, 충청, 전라 지역의 스승을 대상으로 서울 총지사에서 교육을 시작했다. 근본불교개설, 비교종교학, 밀교 이론, 한문 등의 과목을 주 1회 3개월 과정으로 진행했다.

다음 해 3월 서울경인교구와 충청전라교구

승직자를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시행, 불교와 생활윤리, 선가귀감 등을 추가 개설했다. 수준 높은 강의에 만족도가 높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참여율을 높이려고 시기와 장소를 분산 개최한 데 따른 중앙교육원 전담 인력과 교수진의 부족, 주 1회 교육의 한계, 교육 대상의 층위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과정의 필요성 등 개선 과제를 남겼다.

2004년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시무교육과 종무원교육을 시행했다. 7개월에서 2년 과정의 다양하고 집중적인 시무교육을 진행하여 인재 양성에 공을 들였고, 통리원 등의 중앙기구와 각 사원의 종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불교학과 밀교학, 범의의식과 수행체계, 종법과 행정 실무 등을 교육하여 교화 역량을 뒷받침했다. 시무교육과 종무원 교육에는 불교와 밀교학 이외에 정보화시대 리더십과 전략기획, 비영리기관의 마케팅 전략과 조직 경영 기법 등을 도입하여 사원의 교화와 경영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했다.

2010년에는 기존 시무교육 일정에 해외 수행 연수를 도입했다. 상좌부 불교의 위빠사나 관법을 체험함으로써 종단의 삼밀수행관법을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체득시키려고 3명의 시무를 미얀마 마하시 선원의 백일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 총지의 진리 '합창'

창종 초기부터 음성포교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펼쳤던 종단은 1987년과 1988년 전국 12개 사원의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찬불가 보급과 교도들의 단합을 도모했다. 찬불가를 매개로 사원의 신행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은 합창단들



1987년도 '제1회 전국합창단경연대회'

은 점차 지역 불교계와 교류하고 종단의 대외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종단 홍보에 일익을 담당했다.

원정 대성사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창단한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은 한동안의 침체를 딛고 1995년 재창단했다.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활기를 띄게 된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은 종단 차원의 연합행사를 지원하는 든든한 응원군이 되었다. 2001년 시작된 전국불교음악제의 전국 순회공연에 매년 종단 관계자와 함께했으며, 서울경기불교합창단 활동에 참여하여 부처님오신날 연등 축제 등 각종 불교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펼쳤다.

종단의 육자진언인 옴마니반메훔과 여의보주의 의미를 살려 2010년부터 마니합창단이라 이름하고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주최한 '2010 불교 합창 페스티벌'에서 기존의 여성 3중창단에 남성 합창단원을 포함해 4중창단으로 경연에 도전하기도 했다. 창종 초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은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여 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자리를 굳혔다. 2006년 부산 36개 합창단 7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회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배 찬불가 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정각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2007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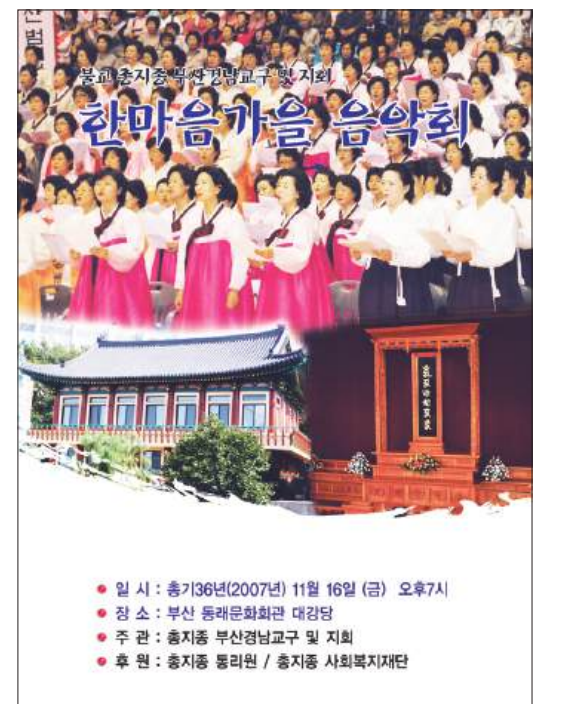
2003년 예비 승직자 양성 교육

마음 가을 음악회' 등 종단 및 사원의 문화행사를 뒷받침함으로써 합창단의 존재 이유와 활동 방향을 모범적으로 보여줬다. 2007년 10월 제1회 범어사 개산 선문화 합창 경연대회에서 17개 지역합창단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1983년 창립하여 종단 행사와 불교계 각종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펼쳤던 만보사 합창단은 1995년부터 매년 대전불교사암연합회와 불교연합합창단이 개최하는 불교음악제에 참가하여 찬불가 보급과 총지종 홍보에 앞장섰다. 1996년 불교방송에서 주최하는 신작 찬불가 발표회 '음악 공양의 밤'에 전국 각 종단의 합창단과 함께 참가하여 향기로운 불음을 전파했다.

개천사 금강합창단은 1998년부터 매년 독자적으로 찬불가 발표회를 개최하여 종단 찬불가를 비롯한 불교 찬불가를 보급했다. 지역의 음악인과 학생들의 특별 찬조 공연을 유치하여 지역 교류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개천사 금강합창단을 모태로 이후 대구경북교구 연합으로 금강합창단을 결성하여 음성공양을 이어갔다. 윤천사는 부림합창단을 창립하여 49대에서 조가를 연주하는 등 불사와 사원 행사를 지원하고 오륙도 신문사 주최 합창 공연을 비롯한 대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2005년 2월 서울경인교구 합창단과 정각



2007년 '부산경남교구 한마음 가을 음악회' 포스터

사·만보사·개천사 합창단은 전국 단위의 연합 합창단을 구성했다. 수 개월간 연습과 합숙 훈련을 거듭하여 종단 찬불가 제1집 <음성공양 받으소서>를 발간했다. <참회가>, <오대서원가>, <회향가>, <참교가>, <밀교삼신> 등 종단 교유의 의식곡과 찬불가 17곡을 CD에 수록하여 전국 사원에 보급했다. 찬불가 CD는 2018년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이 현악 4중주에 맞춰 2집을, 2019년 정각사 만다라합창단이 챔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3집을 발간했다. 찬불가 CD 2집과 3집은 노래와 반주곡 MR을 함께 수록하고 코드 악보를 배포하여 법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총지사 교도 광고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연세숲내과  
Yonsei Forest Clinic

원장 김 채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Tel. 02-496-0779 Fax. 02-496-0778



소통의 한의학@

## 마음과 건강

20여 년 전의 일이다. 한의대 6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게 되었다. 국가고시 합격을 위하여 6년 동안 나름 충실히 준비하여 시험에 임하였지만, 시험 과목이 많고 출제 범위가 광범위하여 어려운 문제가 많은지라 내심 걱정도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 정답이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한 문제가 상당수 있었다. 시험을 끝내고 나오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눈앞이 캄캄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적이 합격선을 넘지 못하고 떨어질 것 같았다.

시험을 끝내서 후련해야 했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낙방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으며, 스스로가 너무나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져 몸에 기운이 다 빠졌다. 이때는 무얼 하여도 마음의 무거움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험 발표일이 되어 떨어지는 마음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해보니, 오! 합격이었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무겁던 마음은 눈 녹듯 없어지고 몸에 새로운 활기가 차올랐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솔하게 이러한 경험을 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과 몸에 자신감과 활력이 샘솟고, 반대의 경우에는 우울해지고 몸에 기운이 빠지며 자신의 무능력함에 자학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항상성을 잃고 병리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 마음의 문제가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캐나다의 의사 한스 셀리에(Hans Selye, 1907~1982)가 처음으로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리적인 문제를 설명한 바 있다. 1936년 셀리에

는 과정에서 고통 받는 쥐에게서 생겨나는 유사한 신체적 변화를 발견했다. 셀리에에는 이 발견을 과학적저널 <네이처>에 한 페이지짜리 짤막한 논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논문의 제목은 <다양한 유해 자극으로 생긴 증후군>이다. 이 논문에서 그는 “손상을 입히는 자극의 유형에 무관하게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며 이를 ‘일반적응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줄여서 GAS)’이라고 명명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셀리에 교수는 이 증상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불렀다. 요즘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생겨난 기원이다.

한의학에서는 신체와 마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병리적인 현상을 칠정상(七情傷)이라 하여 중요한 병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칠정상은 희(喜)·노(怒)·우(憂)·사(思)·비(悲)·공(恐)·경(驚) 7가지의 감정이 지나치면 인체에 질병을 야기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연구에서 스트레스의 형태에 따라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등 호르몬이 분비되는 상태를 확인하였고, 호르몬의 종류와 분비량에 따라 인체의 뇌에서 해마가 손상을 입거나 심혈관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면역계 등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와 관찰들은 심리적으로 평정한 상태에 있을 때 신체 기관 또한 건강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인체는 특히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절

망감과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감정과 인식이 스며들 때 자신을 파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신이 스스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체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해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생각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몸을 공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면역 관련 질환이 이러한 심리적 상태에서 유발되는 듯하다.

부정적 감정은 단순히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의 생존의 힘을 꺾는다. 나아가 위험으로부터 방어하는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암세포 등을 제거하는 기능이 무장해제당하게 되어 치명적인 병리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생존을 위하여는 마음이 평정에 있을 수 있도록 외부의 환경과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을 조율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 변화는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것이 극단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통제하여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휘체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심(心)을 ‘일신의 군주’라 하였고, ‘심이 흔들리면 일국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즉 심은 언제나 스스로가 존귀하며 아름다운 존재라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도록 ‘나’를 운영하는 것이 건강의 초석이다.

나무와 숲 한의원 정은철 원장



정각사 김말필 영식 49재에 올리는 글

##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어느새 49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어머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이곳 정각사에 모였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사랑과 지혜로 보듬어 주셨던 어머니. 어머니의 격려와 기도는 각박한 사회생활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지금도 초인종을 누르면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활짝 반기며 뛰어나오실 것만 같습니다.

서른여덟 가슴 시리도록 푸르른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철없는 어린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은, 오십이 훌쩍 넘은 지금의 저로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연일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참을 수가 없도록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달래며 가며 헤아릴 수 없는 설움 혼자 지낸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가며 눈물로 보내야만 한다는...

어느 여행길 차 안에서 어머님께서 부르시던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랫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머님께서 살아온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더 실금을 울렸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오시는 동안의 한은 어머니 혼자 고스란히 가슴에 품고 자식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주고자 하셨던 어머니! 정직함과 옳은 길만을 살아가고자 하신 어머니의 삶은 저희에게 귀감이 되어 주었고, 그 가르침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님, 엄마, 할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설움에 목이 매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저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편안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머님,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희 어머니이셔서 행복했습니다.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총기 54년 3월 1일 며느리 김금순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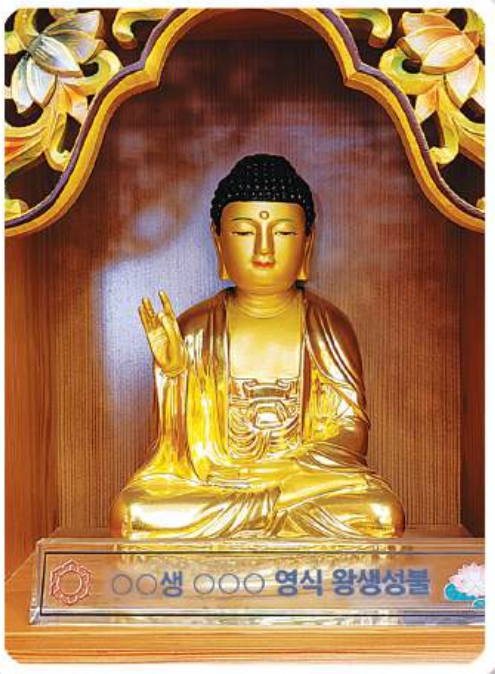
## 독자 숨씨

### ‘광명진언’

“원형 광명진언은 액자에 넣은 탁상용이나 지갑에 넣는 휴대용으로 써보았습니다. 자연이 마법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많은 대중 중생들의 심신에도 봄의 마법과 같은 불보살님의 가피가 깃들여 온기와 여유가 스미어 번지기를 축원합니다.”

구독자 신형섭 합장

#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 정각사

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 정각사

상담문의. 051-552-7901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정각사)

해광 정사의  
서원당 안의 불교②

광명진언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 중 하나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을 거느리고 포함하는 진언입니다. 또한 이 진언 안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진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옴 아모카 비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반메 지바라 파라파티야 흠

이 진언은 부처님의 덕성과 공능이 마치 밝은 광명(光明)으로 널리 세상을 비추는 태양에 비유됩니다. 현상에서 일체 소원을 이루고 재난을 소멸하며 고인(故人)으로 하여금 극락왕생하게 하는 진언으로, 외우면 부처님의 광명을 얻어 모든 죄보가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어깨높이 들어 올리고 손바닥을 활짝 펴니다. 다섯 손가락은 곧게 펴서 마치 손바닥에서 오색(홍, 백, 청, 황, 적) 광채가 퍼져 나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수인을 앞으로 향한 것은 모든 중죄를 타파하여 고통받는 중생을 반드시 극락정토에 이르게 하겠다는 맹서의 의미입니다. 또한 다섯 손가락은 오불(비로자나 불,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을 의미합니다.

『불공견색신변진언경』에 의하면, 광명진언의 공덕은 “이 진언을 외우는 자는 광명을 얻어 여러 가지 중죄를 멸하고 속세의 업과 병고, 장애를 없애고 지혜와 번재와 장수복락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진언으로 가지(加持)한 토사(土砂)를 죽은 사람이나 무덤 위에 뿌리면 이고득락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토(加持土)는 일반 흙과 다릅니다. 이 가지토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으로 신통력을 지닌 흙입니다. 실제 신라시대 고승 원효 대사는 그의 저서를 통해 광명진언과 가지토의 서원 사용을 강조하였으며, 가지고 다니던 바가지에 깨끗한 모래를 담아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후 그 모래를 죽은 자나 무덤 위에 뿌려 영가의 극락왕생을 천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총지종과 현교 종단에서는 돌아가

광명진언(光明眞言)



해탈절 49일 봉공에서 광명진언 수인을 취한 모습.

신 영가의 천도를 위하여 재불사나 상장의례에 광명진언을 많이 지송(持誦)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교에서 사용하는 광명진언은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바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흠’이라고 읽습니다.

|   |   |   |   |   |   |   |   |   |   |
|---|---|---|---|---|---|---|---|---|---|
| 옴 | 마 | 니 | 반 | 매 | 흠 |   | 공 | 교 | 육 |
| 부 |   |   | 아 |   | 치 |   | 부 |   | 합 |
| 즈 |   | 결 | 심 |   | 다 | 비 |   |   | 상 |
| 맨 | 발 |   | 경 | 지 |   | 실 | 마 | 리 |   |
|   | 가 |   |   | 식 |   | 비 |   |   |   |
| 원 | 송 | 이 |   |   |   | 실 | 업 | 자 |   |
|   | 이 |   | 천 |   | 자 |   | 동 |   |   |
| 공 |   | 낭 | 만 |   | 산 |   | 이 | 야 | 기 |
| 휴 |   |   | 다 | 이 | 어 | 트 |   |   | 술 |
| 일 | 반 | 통 | 행 |   | 보 |   | 그 | 림 | 자 |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화령 정사의  
담마빠다 톨아보기

열매의 과보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도 그것을 즐긴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고 나면 마침내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수한 악업을 짓고 있습니다. 악업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큰 악업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서 곧 알게 되지만, 작은 악업은 그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업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업은 단지 터질 만큼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작은 악업이 모여 크게 터질 때는 엄청난 불행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가 지어 놓은 악업의 크기를 잊어버리고 재수가 없다거나 세상을 탓합니다.



봄바람은 만물을 화육(化育)하고  
겨울 눈은 천지를 얼어붙게 한다

중국 명대 홍응명이 지은 삼교일치의 통속적인 처세 철학서인 <채근담(菜根譚)>을 보면, “봄바람은 온화해 만물이 화육(化育)하고, 겨울눈은 천지를 얼어붙게 해 만물을 죽인다.”고 했다. 이 말은 느그럽고 온화한 마음은 봄바람과 같아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생활에 활기가 넘치게 되고, 의심이 많고 각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겨울눈과 같아서 함께 있으면 의기가 저하하고 침체(沈滯)와 혼란이 있을 뿐이라는 의미이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편해야 일신도 편하고 건강하게 된다. 우리는 일평생 회로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누구도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감정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중에 내재되어 있는 일곱 가지 감정의 희·노·애·락·애·오·육(喜·怒·愛·樂·哀·惡·慾)이 순간순간 바뀌어, 우리네 가슴을 수시로 요동치게 만든다.

인간이 가지는 감정을 크게 나누어 보면, 기쁨, 즐거움, 사랑 같은 밝고 가뻛고 희망적인 긍정적인 감정과 여기에 비하여 무거우면서 어두운 부정적인 감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밝고 희망적인 감정의 매사 웃는 얼굴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사람의 뇌세포(腦細胞)를 활성화하고 몸을 이롭게 하는 베타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면역성이 강해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지만, 늘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린다는 이야기다.

의사들은 밝고 긍정적인 감정은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해서 질병의 치유 능력까지 높인다고 말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은 마이너스 발상 즉, ‘스트레스’라 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로 욕심이 전제되고, 그 욕심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생겨나서, 때로는 분노와 슬픔으로 잉태되어 서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으로 발전하고 항상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전제되어 있어서 이것을 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플러스 발상의 항상심(恒常心)을 유지하는 일도 절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최대한 부정적인 감정인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오래 기억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건강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삶의 윤택함을 위해 담담한 마음을 가지자.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바로고 굳세고 총명하게 하고, 좁은 이기가 아닌 관용의 미덕을 지니게 한다. 담담한 마음은 도리를 알고 가치를 아는 것으로, 융통 자재의 평상심(平常心)을 잃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담담한 마음은 모든 것을 배우려는 노력이고, 받아들이려는 빈 마음이며, 조용한 가운데 자기 한계에 도전하는 항상심이다.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데, 길게는 일생을 지배하고 운명을 좌우한다. 생각하고 마음 먹는 대로 우리의 생활이 변하는 만큼, 바른 마음으로 할 일을 생각하고, 밝은 마음으로 실행하면 반드시 성공이라는 정상에 다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맑은 마음을 가질 때 건강한 생각이 나오는 것인 만큼 봄바람 같은 온화함으로 이웃과 친교 하며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한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2월 21일 ~ 3월 20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     |      |         |
|-------------|-----|------|---------|
| 관성사         | 법선  | 2/24 | 10,000  |
| 국광사         | 진여  | 3/20 | 10,000  |
| 기로스승        | 공덕성 | 2/24 | 20,000  |
|             | 수증원 | 2/24 | 10,000  |
|             | 밀공정 | 2/24 | 10,000  |
|             | 법지원 | 2/24 | 10,000  |
|             | 일성혜 | 2/24 | 10,000  |
|             | 사홍화 | 2/24 | 10,000  |
|             | 안주화 | 2/24 | 10,000  |
|             | 진일심 | 2/24 | 10,000  |
|             | 최상관 | 2/24 | 10,000  |
|             | 연등원 | 2/24 | 10,000  |
| 단음사         | 자선화 | 2/24 | 10,000  |
|             | 승효제 | 2/24 | 10,000  |
|             | 주신제 | 2/24 | 10,000  |
|             | 총지화 | 2/24 | 10,000  |
| 단향사         | 이규성 | 3/10 | 50,000  |
|             | 지홍  | 3/17 | 10,000  |
| 대한불교<br>총화중 | 김해각 | 3/14 | 200,000 |
| 덕화사         | 법상인 | 2/24 | 20,000  |
|             | 김진화 | 3/3  | 10,000  |
| 동해사         | 송인근 | 3/20 | 10,000  |
|             | 이종구 | 3/11 | 7,000   |
| 만보사         | 최옥순 | 3/13 | 10,000  |
|             | 김정희 | 3/19 | 10,000  |

|              |     |      |         |
|--------------|-----|------|---------|
| 밀인사          | 박길선 | 3/10 | 10,000  |
|              | 덕광  | 3/10 | 20,000  |
|              | 황갑용 | 3/10 | 20,000  |
| 법성사          | 남해  | 2/24 | 10,000  |
|              | 장정숙 | 3/17 | 10,000  |
| 법천사          | 신말심 | 3/17 | 10,000  |
|              | 반야심 | 2/28 | 10,000  |
| 법황사          | 인선  | 2/24 | 10,000  |
|              | 정계월 | 2/24 | 10,000  |
| 벗고을<br>어린이집  | 박미경 | 2/25 | 10,000  |
|              | 이민선 | 3/1  | 80,000  |
| 사원명<br>무기명   | 하명순 | 2/25 | 10,000  |
|              | 무명씨 | 3/4  | 10,000  |
|              | 무명씨 | 3/13 | 200,000 |
|              | 박필남 | 3/15 | 10,000  |
| 삼밀사          | 모홍  | 2/28 | 10,000  |
|              |     | 3/18 | 10,000  |
| 석관실버<br>복지센터 | 이태운 | 2/25 | 10,000  |
|              | 나석원 | 2/25 | 50,000  |
|              | 박현정 | 2/25 | 20,000  |
|              | 신찬호 | 2/25 | 10,000  |
| 선립사          | 지명  | 3/15 | 10,000  |
|              | 김경희 | 2/25 | 30,000  |
| 세곡<br>키움센터   | 최선훈 | 2/25 | 10,000  |
|              | 남경식 | 3/9  | 10,000  |
| 수인사          | 법상  | 2/24 | 20,000  |

|              |     |      |         |
|--------------|-----|------|---------|
| 수인사          | 법상  | 3/17 | 20,000  |
| 시법사          | 해광  | 3/7  | 10,000  |
|              | 이순영 | 3/7  | 20,000  |
| 실지사          | 황성녀 | 2/28 | 10,000  |
| 아동회관<br>어린이집 | 진금선 | 2/25 | 160,000 |
| 양지복지<br>회관   | 서영주 | 3/1  | 10,000  |
| 양지어린이<br>이집  | 정동숙 | 2/27 | 80,000  |
| 운천사          | 보명심 | 2/24 | 10,000  |
|              | 우인  | 2/24 | 10,000  |
|              | 반야화 | 3/8  | 20,000  |
|              | 한경림 | 3/13 | 30,000  |
|              | 보명심 | 3/17 | 10,000  |
|              | 우인  | 3/17 | 10,000  |
| 일원<br>어린이집   | 반야화 | 3/20 | 30,000  |
|              | 하재희 | 2/25 | 80,000  |
|              | 연명구 | 2/25 | 20,000  |
| 자석사          | 도우  | 3/10 | 10,000  |
|              | 지현  | 3/10 | 10,000  |
| 잠원햇살<br>어린이집 | 김선희 | 2/26 | 80,000  |
| 정각사          | 안한수 | 3/7  | 10,000  |
|              | 탁상달 | 3/12 | 10,000  |
|              | 노점호 | 3/18 | 10,000  |
|              | 법일  | 3/20 | 10,000  |

|            |     |      |        |
|------------|-----|------|--------|
| 제석사        | 이진승 | 2/24 | 10,000 |
|            | 김병관 | 2/25 | 10,000 |
|            | 김민준 | 2/28 | 10,000 |
|            | 록경  | 3/1  | 40,000 |
|            | 무명씨 | 3/4  | 50,000 |
|            | 정연경 | 3/7  | 10,000 |
|            | 유은혁 | 3/7  | 10,000 |
|            | 김정환 | 3/10 | 10,000 |
|            | 백귀임 | 3/10 | 10,000 |
|            | 최영아 | 3/10 | 10,000 |
| 총지사        | 신현태 | 3/11 | 10,000 |
|            | 최지아 | 3/12 | 10,000 |
|            | 김평석 | 2/25 | 10,000 |
|            | 최영례 | 2/27 | 10,000 |
|            | 강동화 | 2/27 | 10,000 |
| 통리원        | 송영근 | 3/1  | 10,000 |
|            | 송하나 | 3/1  | 10,000 |
|            | 송호영 | 3/1  | 10,000 |
|            | 홍춘자 | 3/1  | 10,000 |
|            | 박대영 | 3/1  | 10,000 |
|            | 박대성 | 3/1  | 10,000 |
|            | 무명씨 | 3/4  | 10,000 |
|            | 행원심 | 3/11 | 10,000 |
|            | 이은별 | 3/11 | 10,000 |
|            | 곽방은 | 3/10 | 80,000 |
| 해정사        | 김평석 | 2/25 | 10,000 |
| 화음사        | 최영례 | 2/27 | 10,000 |
| 힐스<br>어린이집 | 송영근 | 3/1  | 10,000 |
|            | 송하나 | 3/1  | 10,000 |
|            | 송호영 | 3/1  | 10,000 |
|            | 홍춘자 | 3/1  | 10,000 |
|            | 박대영 | 3/1  | 10,000 |
|            | 박대성 | 3/1  | 10,000 |
|            | 무명씨 | 3/4  | 10,000 |
|            | 행원심 | 3/11 | 10,000 |
|            | 이은별 | 3/11 | 10,000 |
|            | 곽방은 | 3/10 | 80,000 |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㉓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

## 나련제려야사 스님의 교화행

사문 나련제려야사(那連提黎耶舍)는 중국말로로는 존칭(尊稱)이라 부르며, 북인도 오장국(烏장國) 사람이다. (종략) 그 나라 임금은 부처님과 같은 씨족이고, 성도 역시 석가(釋迦)이며, 찰제리(刹帝利) 종족이다. 이 찰제리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토전주(土田主)라는 뜻이다. 이것은 겁(劫)이 시작된 초기에 먼저 땅을 나누어 주인이 되게 하였으므로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 지금은 이른바 국왕이 바로 그것이다.

나련제려야사는 나이 열일곱 살 때 발심하여 출가하였고, 이어 이름난 스승을 찾아가 바른 가르침을 두루 들었다. 스물한 살 때 구족계를 받았다. (종략) 나련제려야사는 늘 번역하다가 틈이 날 때는 신주(神呪)를 베껴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구제하였고, 또 드러나게 사람들에게 도와 공을 세우는 일이 많았다. 얼마 지난 뒤에 나라에서는 그에게 소현도(昭玄都)의 소임을 부촉하였다. 곧 자리를 바꾸어 소현통(昭玄統)이 되게 하였다.

그는 나라에서 얻는 공물을 자신의 생활에만 쓰지 않고, 즐거이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켜 기꺼이 복된 일을 일으켰다. 공양을 마련하여 스님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보시하였다. 욕에 갇힌 죄수와 축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구제하였고, 저자의 좁고 번잡한 곳에는 우물을 만들어 몸소 물을 길어 중생들에게 넘치게 공급하였다.

또 급군(汲郡)의 서쪽 산에 세 개의 절을 세웠는데, 샘이 있는 골짜기를 끼고 있어서 산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었다. 또 몸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거두어 요양토록 하고, 남녀의 구역을 서로 달리하여 사사

공양(四事供養)하여 힘써 두루 공급하였다. 또 돌궐(突厥)의 객관(客館)을 찾아가서 육재일(六齋)을 지킬 것을 권유하고, 양의 고기를 끊고 방생하게 하고 채식을 먹게 하였다. - 『개원석교록』 제6권

『개원석교록』은 당나라 개원(開元) 18년(730)에 지승(智昇) 스님이 엮은, 가장 잘 정비된 불교 경전 목록으로 꼽힌다.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언제 누가 번역했는지, 당시의 사정과 번역한 사람에 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다. 그중에서 『보살경(寶積經)』에 편입된 『보살견보삼매경(菩薩見寶三昧經)』을 번역한 나련제려야사 스님의 이야기다. 그는 나라에서 얻는 공물을 자신의 생활에만 쓰지 않고, 음식을 마련하여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보시하였다. 욕에 갇힌 죄수와 축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구제하였다. 또 몸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거두어 요양토록 하고, 사사공양하여 힘써 두루 공급하였다.

교화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 욕에 갇힌 죄수나 몸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대개 꺼리고 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기꺼이 보시하고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약을 힘써 두루 공급하였다 하니 수희탄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건강을 돌보고 수명을 이어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물까지 보살핌의 손길을 주었다고 하니 스님의 자비행이 실로 크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재난은 점점 빈번해질 것이다. 우리는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후 위기는 인간의 과도한 생산과 소비에서 비롯되었으니, 소비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자연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사람들은 고립되고 외롭다. 소비주의는 결핍을 강요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기 위해 더 오래 일해야 하고, 서로를 보살필 시간이커녕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다. 그래서 외롭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선의를 베풀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야 우리 사회는 서로 돕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

돌궐의 객관을 찾아가서 육재일을 지킬 것을 권유하고, 양의 고기를 끊고 방생하게 하고 채식을 먹게 하였다고 하니 스스로 동물을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확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위를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미는 것이나 육식을 끊고 채식하는 것 모두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좁은 우리에 갇혀서 동물로서의 본능마저 억압당한 채 오직 사람을 위한 고깃덩이로 살아가다 수명보다 더 빨리 죽임을 당하는 공장식 축산동물을 본다면 나련제려야사 스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

남해 정사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 인도성지순례기 - ④ 성도의 땅 붓다가야

셋째 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가야로 가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출발했다. 날이 밝지 않은 어두운 도로에 안개까지 자욱하게 내려앉자, 도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인 버스 기사는 당연하다는 듯 여유롭게 운전하고 있었다. 날이 밝고 한참 후에야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인도의 시골길 풍경은 사뭇 낯설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농지와 띄엄띄엄 보이는 작은 숲, 도로변을 따라 이어지는 집, 그리고 집 앞의 작은 의자에 앉아 한가롭게 세상을 관조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풍요로움을 주는 땅과 강, 그리고 온화한 기후, 인도에 거처는 많아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이니 당연히 출가 수행자가 많았을 것이다.

7시간 넘게 이동한 후 부처님께 유미죽(유유로 만든 죽)을 올린 수자타 여인을 기념해 만든 수자타 스투파에 도착했다. 부처님께서 6년 간의 고행 후 고행으로는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네란자라강에서 목욕하셨다. 그리고 수자타 여인이 건네준 유미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한 후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 수행을 통해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셨다.

수자타 스투파를 참배하고 탑돌이를 마친 후 네란자라강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려는 데 버스 앞에 젊은 남성 두 명이 책자를 보여 주며 말을 걸었다. 인도인 가이드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두 사람은 인근의 학교 선생인데 학교 운영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두 사람에게 기부하고 버스에 올라 네란자라강으로 향했다.

오후 늦은 시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가 있는 곳에 세워진 마하보디 사원으로 향했다. 마하보디 사원 입구에는 많은 상가와 호객꾼이 수행자와 순례자, 그리고 관광객을 맞이했다. 마하보디 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작은 가게에 맡기고 맨발로 걸어서 사원으로 향했다. 마하보디 사원에는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수행자가 자리를 잡고 수행과 예불, 그

리고 오체투지를 하고 있었다. 마하보디 사원에 도착하여 먼저 부처님께 예배드린 후 불족적과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 금강대좌를 참배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7·7일(49일) 동안 수행하신 장소 일곱 곳을 참배하였다.

마하보디 사원을 둘러보던 중 그곳에서 수행하고 있던 수행자 한 분이 내게 와서 보리수잎을 내밀며 따라왔다. 물건을 파는 호객꾼으로 착각하여 “노머니! 노머니!”라고 하였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인도인 가이드가 “수행자께서 정사님이 전생에 같이 수행하던 도반이라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잎을 주고 싶다 하신다”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리수잎을 받은 후 서로 합장례를 하였다. 예전에 내가 전생에 외국인 수행자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마하보디 사원을 다 둘러보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불공하기 좋은 장소를 찾다가 마침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 앞에 자리가 비어 스승님들과 함께 법의를 갖추어 입고 티베트 스님들이 빌려준 방석을 깔고 앉아 불공을 시작했다. 주변 여러 곳에서도 불공하고 있었고, 스피커를 사용해 집중하는 곳도 있어서 나의 집중 소리가 묻혔다. 함께 불공하시던 스승님들이 불공 소리를 맞추기 어려웠다. 집중하던 중 우리 종단 현실과 닮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불공이 끝난 후 스승님들께 “불공 소리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어떻게 종단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스승님들이 “집중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셨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

호텔에 도착하여 저녁 공양을 하고 있는데 마하보디 사원에서 한 달째 수행 중이라는 한국에서 오신 비구니 스님이 “라면을 끓였다.”라며 먹어보라고 그릇에 담아주셨다. 라면은 어디에서 먹느냐, 누가 끓여주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숙소에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뜬눈으로 다음날을 맞이했다. [다음 호에 계속]

마하보디사원 보리수잎

##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 가정불공으로 ‘생활시불공 불공시생활’

집집마다 본존 봉안, 재난소멸 소원성취 발원



총지사 안지에 교도 가정불공 모습



총지사 성준 교도 가정불공 후 답하 모습

총지사 주교 록경 정사와 범수연 전수가 오전부터 분주하다. 오늘은 가정불공이 두 차례나 있는 날이다. 총지사 안지에 교도 가정불공을 마치고, 이어 성준원 교도 집으로도 가야 한다. 백귀임 신정회 회장, 김은미 마니합창단 단장 등 교도들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가정불공은 가정에서 스승님을 모시고 교도와 함께 수행을 증진하고 가정의 평안과 소원 성취를 위해 올리는 불공이다. 이 불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했을 때와 새해불공을 마치고 하는 안택불공이다.

오늘 가정불공이 있는 두 교도의 가정은 이웃으로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되어 비슷한 날짜에 입주하게 되었고, 같은 날 가정불공을 하게 되었다. 이날은 ‘가정본존봉안 불사’를 봉행하기로 했다.

서원당에 모셔져 있는 본존을 개인의 가정에 모셔 놓는데, 이를 ‘가정본존’ 또는 ‘가정다라니’라고 한다. 이를 집에 모셔 놓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서원당에서 불공을 못 하게 될 경우 누구나 집에서도 불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이 바로 ‘생활시불공 불공시생활(生活是佛供 佛供是生活)’이요, ‘시시불공 처처불공(時時佛供 處處佛供)’이다. 종조 원정 대성사님은 일찍이 ‘생활 불교’를 표방하셨다. ‘불교를 생활화한다.’는 뜻이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생활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가정 불공은 종조님의 가르침이 가장 잘 스며든 우리의 불공법 중의 하나다.

이사를 하게 될 때는 본존을 내릴 시 ‘가정본존 이안 불사’를 하고, 이사를 간 후에는 ‘가정본존 봉안 불사’를 올린다. 부득이한 경우 이사가기 전 이안 불사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단에서는 이사 후 본존을 모실 때에는 봉안불사를 반드시 지키고 있다.

범수연 전수는 “가정불공은 교도 가정을 방문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가정에서 행할 상황이 되지 못할 때는 서원당에서도 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공할 수 있으니, 불공하는 생활로 일체 재난을 소멸하고, 복덕 짓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 가로세로 총/지/문/답

|    |   |   |   |   |   |   |    |  |   |
|----|---|---|---|---|---|---|----|--|---|
| ①㉑ |   |   | ㉒ |   | ㉓ |   | ②㉔ |  | ㉕ |
|    |   |   |   |   |   |   |    |  |   |
|    |   |   | ③ |   | ⑥ | ㉖ |    |  |   |
| ④  | ㉗ |   | ⑤ | ㉘ |   | ⑦ |    |  |   |
|    |   |   |   |   |   |   |    |  |   |
| ⑧  |   |   |   |   |   | ⑨ | ㉙  |  |   |
|    |   |   | ㉚ |   | ㉛ |   |    |  |   |
| ㉜  |   | ⑩ |   |   |   |   | ⑪  |  | ㉝ |
|    |   |   | ⑫ |   |   |   |    |  |   |
| ⑬  |   |   |   |   |   |   | ⑭  |  |   |

### 가로 열쇠

- ① 중생 구제와 재난 소멸, 소원 성취의 공덕이 깃든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 ② 공적인 재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교육
- ③ 어떻게 하기로 자기 뜻을 확실히 정함
- ④ 양말이나 신을 신지 않은 발
- ⑤ 정신이나 몸, 기술 따위가 도달해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단계나 상태
- ⑥ 죽은 이의 시신을 불에 태워 그 유골을 거두는 불교의 장례 방법
- ⑦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계기
- ⑧ 남의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⑩ 감정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심리적 상태
- ⑪ 말하는 사람끼리 서로 오가는 말
- ⑫ 건강을 증진하거나 체중을 줄일 목적으로 음식물을 조절하여 섭취함
- ⑬ 사람이나 차량을 도로의 한쪽 방향으로만 가도록 제한하는 방식
- ⑭ 물체가 빛을 가리어 물체의 뒤에 나타나는 검은 형상

### 세로 열쇠

- ①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입법부의 위원
- ② 총 262자로 대승불교 반야 사상의 핵심을 담은 짧은 경전
- ③ 문질러서 닦아 내다, 물기나 때 따위를 닦아 깨끗이 하다
- ④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힘
- ⑤ 총지종 교의의 상징이자 종지를 표시하는 종단 대표 상징 문양
- ⑥ 나무와 풀이 없어서 흙이 다 드러나 보이는 산이나 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
- ⑥ 힘이 없어서 자꾸 흐느적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⑤ 국경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진 휴일
- ⑧ 어떤 일이 뜻밖에 잘 풀려 몹시 좋음
- ③ 조선 시대, 1814년에 정약전이 지은 어류학서
- ⑥ 자기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거나 우연히 얻거나 하여 기르는 아이
- ⑧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



## 불교서적 월간베스트(3/1~31)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 순위 | 도서명                 | 출판사    | 저자          |
|----|---------------------|--------|-------------|
| 1  | 밀교의 성불 원리           | 불광출판사  | 중암 선혜 역해    |
| 2  | 사십구재란 무엇인가(생활불교총서1) | 동진삼보기획 | 효림 지음       |
| 3  | 요가디피카-육체의 한계를 넘어    | 선요가    | 아행가/현천 역    |
| 4  | 불멸3-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 지혜의눈   | 이각          |
| 5  | 부처님의 생애             | 조계종출판사 | 교육원 편찬위     |
| 6  |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 운주사    | 탄하삼성/최만희 편저 |
| 7  | 부처님의 당부-초기경전 지혜의 말씀 | 사유수    | 비구 보디/등현 감수 |



## 불교총지종



##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                |                       |
|----------------|-----------------------|
| 공식불공           | 매일 오전 10시             |
| 자성일불공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 월초불공           | 매월 첫째 주 7일간           |
| 새해불공           |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
| 종조탄신일          | 매년 양력 1월 29일          |
|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
| 부처님오신날         | 매년 음력 4월 8일           |
|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
| 해탈절(우란분절)      | 매년 양력 7월 15일          |
| 종조멸도절          | 매년 양력 9월 8일           |
| 창교절            | 매년 양력 12월 24일         |

###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                 |                                                                                                                                                                                                |
|-----------------|------------------------------------------------------------------------------------------------------------------------------------------------------------------------------------------------|
| 새해불공            |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
|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
| 월초불공            |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
| 자성일 불공          |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 사원명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구경북교구 |       |                              |                 |
|--------|-------|-------------------------------|-----------------|--------|-------|------------------------------|-----------------|
| 통리원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 (02)552-1080-3  | 개천사    | 41958 | 대구광역시 중구 영로23길 38-10 (봉산동)   | (053)425-7910   |
| 수련원    | 28065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 (043)833-8133   | 건화사    | 38009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 (054)761-2466   |
| 동해중학교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 (051)556-0281-2 | 국광사    | 38145 |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 (054)772-8776   |
| 사회복지재단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 (02)3452-7485   | 단음사    | 38843 |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 (054)333-0526   |
| 서울경인교구 |       |                               |                 | 선립사    | 3754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 (054)261-0310   |
| 관성사    | 0316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 (02)736-0950    | 수계사    | 38048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대경길36-19   | (054)745-5207   |
| 밀인사    | 031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 (02)762-1412    | 수인사    | 37705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 (054)247-7613   |
| 법천사    | 1338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 (031)751-8685   | 승천사    | 38129 |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 (054)746-7434   |
| 벽룡사    | 0870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 (02)889-0211    | 제석사    | 41237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 (053)743-9812   |
| 시법사    | 21358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 (032)522-7684   | 부산경남교구 |       |                              |                 |
| 실지사    | 0116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 (02)983-1492    | 관음사    | 4726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 (051)896-1578   |
| 정심사    | 02137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 (02)491-6888    | 단향사    | 53075 |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 (055)644-5375   |
| 지인사    | 2143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 (032)528-2742   | 덕화사    | 46547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 (051)332-8903   |
| 총지사    | 06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 (02)552-1080    | 밀행사    | 50427 |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 (055)354-3387   |
| 충청전라교구 |       |                               |                 | 법성사    | 48817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 (051)468-7164   |
| 만보사    | 35045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 (042)255-7919   | 삼밀사    | 49060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7가)  | (051)416-9835   |
| 법황사    | 61636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 (062)676-0744   | 성화사    | 48959 |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7가) | (051)254-5134   |
| 혜정사    | 28485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 (043)256-3813   | 실보사    | 44452 |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 (052)244-7760   |
| 흥국사    | 55049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 (063)224-4358   | 운천사    | 51257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 (055)223-2021   |
| 종원사    | 28065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 (043)833-0399   | 일상사    | 50409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 (055)352-8132   |
|        |       |                               |                 | 자석사    | 4824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 (051)752-1892   |
|        |       |                               |                 | 정각사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 (051)552-7901   |
|        |       |                               |                 | 화음사    | 52707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 (055)755-4697   |
|        |       |                               |                 | 동해사    | 4775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 (051)556-0281-2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 연 등 회

YEON  
DEUNG  
HOE  
燃燈會

## 전통등전시회

4월 16일(수)~ 5월 6일(화)  
조계사, 공예박물관

## 연등행렬

4월 26일(토)  
오후 7시, 흥인지문~종각

## 대동한마당

4월 26일(토)  
오후 9시 30분, 종각

## 전통문화마당, 공연마당

4월 27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조계사 앞길

2025  
4.26-4.27

LOTUS LANTERN FESTIVAL  
www.llf.or.kr